



기획 '흑룡만리(黑龍萬里) 제주 돌담 밭' (상) 유산자원 재평가

농경문화·제주인 강인한 생명력 상징

'흑룡만리(黑龍萬里) 제주 돌담 밭'이 비로소 후손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유산자원'으로 대접을 받게 됐다.



카페베네 청년봉사단은 22일 제주시 조천읍 선출리1리에 위치한 제주 4·3성터에서 동백동산 사이의 허물어진 돌담을 보수하는 봉사활동 벌였다.

화산분출의 산물인 제주 돌무더기가 산재하고 바람이 많아 농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다.

밭담 2만2000여km 고려때 경계 쌓기 기록 모양·위치 따라 다양 제주 미학 정수 평가 '100대 민족문화상징' 선정... 극찬 잇달아

라면, 제주 돌담은 척박한 자연 환경과 맞서 싸운 '삶' 자체이며, 제주인의 생존을 위한 버팀목이나 다름없다.

주점의 선과 색을 대표하는 제주 미학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문화관광부는 2006년 한국의 거주생활 부문에서 제주 돌담을 한옥, 온돌, 초가집과 더불어 '1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선정했다.

▶규모=제주 돌담 밭은 제주 전역에 분포한다. 시커먼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담을 모두 이으면 10만리까지 간다.

▶밭담의 역사=밭담을 쌓았다는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약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 TF팀은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 농업, 문화적, 경관적으로 조명하고 미래가치로 방향을 짚었다.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해요!"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영·유아 5000명에 책 전달

서귀포기적의도서관은 2009년 북 스타트(Book-start)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시 지역에서 출생한 신생아 4999명에게 책 꾸러미를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치는 독서문화운동. 시민들이 신생아 출생시기를 하면 북 스타트 책 꾸러미(그림책 2종·손수건·가방·가이드북 2종)를 출생기념으로 지급하고 있다.



타트 후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생후 6~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3~7세를 대상으로 한 공동육아·외국어 동아리활동 등이다.

올해 4·3국가추념일 지정 가능할까

국회 입법조사처 긍정 평가속 박 당선인 공약 이행 주목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주4·3사건 추념일 지정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65주년을 맞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될지 주목된다.

이르기 위해 기념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에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관의 기념일은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제시해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에서 희생된 제주도민에 대한 위로와 추모의 당위성이 존재하고 민족분단이 물고 온 비극적 사건들을 대표한다는 상징성과 4·3이 주는 교훈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에 따라 다음달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국가추념일 지정을 약속한 만큼 65주기 추념일에 맞춰 추모식 참석과 추념일 지정을 실천할지 주목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4·3평화공원을 찾아 현화·분향하는 등 제주4·3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어 제주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추념일 지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즉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는 치유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별법을 통한 해결보다는 '정신보건법'상의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제주4·3평화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 4·3특별법과 함께 기부금품법의 동시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서귀포시가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슈퍼비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사가 슈퍼비전 복지전문가인 슈퍼바이저로부터 사례관리에 대한 조인과 교육을 받는 것 외에 교육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등을 조인받는 것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제공해 나가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in

"기획재정부 출신이라 업무처리 수월"

소통창구 역할 특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주출신인 전문관 가운데 제주자치도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이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 눈길.

주민건의 꼼꼼히 챙기라

○...김재봉 서귀포시장이 22일 "읍·면·동 연두방문 때 나온 주민건의 사항은 꼼꼼히 챙겨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주라"고 지시.

일진경보학교 지정 논란

○...도내 3개 중·고교가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돼 특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고급관리자과정 제23기 (야)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제19기 (야) 1. 모집인원: 60명 내외 2.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3. 지원자격 4. 교육내용 (30주) 5. 원서교부 및 접수 일정 6. 교육기간 및 수강료 감면 특전

(사)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정기총회 및 9·10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사)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회원사간 융합 발전의와 화합의 장을 위한 2013년 정기총회 및 9·10대 회장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청중학교 제17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 마음속 깊은 곳 그리움과 추억이 있습니다. 잔디운동장, 매점, 선착순, 야간학습...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 이 소중한 기억들을 가진 저청중학교를 졸업한지 어느덧 30년 추억을 되새기고 앞으로 더 나은 우리들이 되고픈 마음으로 졸업30주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예비창업자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천지식품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상설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 국수집, 분식점 등 면요리 관련 점포 창업희망자 (고기국수, 회국수, 갈국수, 메밀국수 등) ■지원내용: 신천지식품 부설연구소 시설 이용 레시피 및 연구자료 제공 조리실습용 면제품 무상제공